

# 뜨겁게 재연된 출판물 외설공방

마광수 교수 「즐거운 사라」 논란 일으켜...작가·출판인 모두 구속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저물어가던 올 출판계의 핫이슈라면 아무래도 「즐거운 사라」의 즐겁잡은 파문이 제기한 출판물 외설시비를 꼽을 수 있다.

작가 마광수 교수(연세대 국문과)와 출판인 장석주씨(청하출판사 대표)의 구속으로까지 치달은 이 「즐거운 사라」 파문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이후 우리 문화예술계의 주요 쟁점이 되어온 성표현의 한계와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학 혹은 출판물에 대한 극단의 법률적 조치가 과연 온당한 것일 수 없느냐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즐거운 사라」를 둘러싼 외설시비는 올해 우리 문단과 출판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일본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 「산타페」의 국내출판 문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 올 한해 우리 출판계의 「대미」는 외설시비로 장식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 올 출판계 대미 이루는 핫이슈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공방의 진원지로 부각한 것은 지난 9월 24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 전체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해 “인문 사회 및 도덕분과위원회의 원안대로 당국에 ‘제재건의’를 결정하는 한편 건의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3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결정하면서부터. 전체위원 28명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즐거운 사라」는 국민의 일반 정서와 윤리수위를 넘어 이를 뿌리째 뽑는 외설작품”이라고 단정짓고 “외설적인 묘사보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동을 마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그리고 있는 주제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데 합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작가와 출판사측은 독자 나름의 판단력을 무시한 채 작품의 부분적인 묘사에만 치중한 심의로 외설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학작품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독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 윤리위원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됐다. 윤리위원과 작가 및 출판사측의 이같이 상반된 입장은 같은 달 27일 KBS 제1텔레비전에서 「문학의 성표현 한계논쟁」을 주제로 하여 방영된 「여의도법정」 프로그램에서 공개

적으로 표명되기에 이르며(원고측; 변호인 이태동, 참고인 박종열 피고측; 변호인 김한길, 참고인 장석주), 「출판저널」 10월20일자 지면을 통하여 양측의 입장이 논쟁적으로 개진된다. 그에 따르면 「즐거운 사라」는 한편에선 “판단력이 허약하고 순진한 미성년층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문학작품으로 위장한 듯한 음란도서”(이태동)로 매도되며, 다른 한편에선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성적 욕망에 대한 여러 문화적 억압과 굴레를 벗으려는 90년대의 싸움”으로 옹호된다.

## ‘문학논쟁’에서 ‘형사사건’으로 비화

그러나 사태는 10월 29일 서울지검 특수 2부 김진태 검사가 마광수 교수와 장석주씨를 음란문서 제작 및 배포혐의로 구속하면서 급전한다. 검찰은 「즐거운 사라」가 변태성행위 혼음 동성애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했다고 판단, 마교수 등을 이날 상소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형사지법 이상훈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것.

검찰의 작가 및 출판인 인신구속으로 ‘문학논쟁’에서 ‘형사사건’의 차원으로 옮겨진 「즐거운 사라」 시비는 한층 더 격렬해진다. 우선 문단에서는 마교수와 장씨가 구속된 직후인 10월 31일 문인 230여명의 연명으로 공동성명서를 채택, “국가공권력이 문학작품의 표현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오류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검찰의 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교수가 재직중인 연세대 국문과 교수들과 학생들도 반대와 유감의 뜻을 명백하게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문인들은 「즐거운 사라」가 승화된 에로티시즘을 담고 있지 못하고 포르노소설의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며 검찰의 조치는 은연중 두둔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문화예술계를 제외한 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현직 대학교수가 계속적으로 성개방을 주장하는 외설적인 글을 써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 유해환경경고발센터 등 종교 및 청소년 관련 9개 단체와 유림회 등이 검찰의 사법처리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진전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권력이 해이해지고 있는 보수계층의 힘을 결집시키는 전



마광수 교수 구속과 관련, 지난 11월5일 대학로 충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문학작품 외설시비에 대한 공청회' 장면.

략의 일환으로 「즐거운 사라 파동」이 이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이라도 하듯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은 논객들이 저마다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우선 주목되는 현상은 「즐거운 사라」가 지닌 문학적 약점 탓인지 마교수 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적지 않다는 점. 말하자면, 「즐거운 사라」가 좋은 문학은 못되지만 그 좋고싫음과 옳고그름의 판단이 결코 공권력의 몫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들인데, 「즐거운 사라」에 대해 “속으로는 병들고 곁으로는 꺾어져 위장된 위선적인 사회에 대한 가식없는 직시와 새로운 성윤리에의 요청”이라고 ‘일단은’ 선의로 이해하는 젊은 작가 장정일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씨는 이어 “「즐거운 사라」가 이러한 선의의 해석을 감당할 만큼 수준 높은 작품이 아닐지는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작품의 수준이나 미적 형상화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 작품이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 성표현 잦다 마련하는 계기 되길

「즐거운 사라」를 읽었을 때 검찰이 그 책을 쓴 사람과 발행인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심한 구역질을 동반한 욕지기를 내뱉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문열씨의 경우는 철저하게 양비론적이다. 한 신문의 기고를 통해 이씨는 “이미 알 만한 사람에게는 그 바닥이 드러났을 만큼 함량미달에 정성까지 부족한 불량상품”이 “문화와 지성으로 과대포장되어 문학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며

「즐거운 사라」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드러나게 형평이 깨어졌다”는 점과 “문학계의 자정능력에 대한 지나친 무시”를 들어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도 ‘선불리 빼들길’로 ‘독자들에게 앞뒤없는 동정심부터 일으키게’ 하는 ‘엉뚱한 문학적 순교자를 만들어 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엔 「즐거운 사라」 정도로 놀랄 문학독자는 없다”고 단언하는 평론가 임현영씨의 견해도 대체로 비슷하다. “마광수와 출판인 장석주의 구속으로 저질문화를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저질문화의 변호석으로 자리를 바꿔앉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못내 아쉬울 뿐”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저질문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 때문이라면 이 사건은 지금부터라도 처리방법을 보다 문화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970년대에 미국이 성문화의 전략을 우려하여 몇년간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외설에 관한 미대통령 위원회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례를 상기하여 보다 바람직한 문화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즐거운 사라」를 둘러싼 외설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결코 즐거울 수 없는 「즐거운 사라」 파문이 출판물 성표현의 잦대를 마련하는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사건이 그저 논의 자체로만 무익하게 소모돼버리지 않는다면 출판계나 문화계를 위해 오히려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철주 기자